

어린이 전문서점 대표들이 말하는 어린이책 출판의 현주소

번역물 위주의 출판이 문제...
우리 정서에 맞는 기획과 작가 양성이 과제

백미경 | 다우리 대표

이가을 | 가을글방 대표 · 아동문학가

정병규 | 일산 동화나라 대표 · 사회

어린이 전문서점은 그동안 책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상업성과 유행이 범람하는 출판환경에서 어린이서점은 좋은 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아 어린이 출판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에 어린이 전문서점 대표를 모시고, 어린이책 출판에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병규 —— 오늘은 줄곧 어린이책 출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린이책 전문서점을 운영해 온 분들을 모셨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다 보면 자부심도 생기지만 아쉬움도 느끼실 텐데, 오늘은 평소 생각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최근 어린이책 출판의 두드러진 변화를 짚어보도록 하지요. 이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가을 —— 어린이책 전문출판사와 어린이책 전문서점의 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문출판사들이 어린이책을 활발히 내고, 전문서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판매하면서 어린이책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책이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독자층이 두터워졌습니다. 특히 그림수준이 높아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책에도 그림이 실리면서 아이들이 부담없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백미경 —— 덧붙여 전집물로 출판되던 어린이책을 이제는 서점에서 날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쓴 창작물이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쓴 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이런 책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병규 ——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어린이책 전문출판사가 열두세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출판사들이 어린이책 발전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큼니다. 하지만 어린이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책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저는 우선 어린이책 가운데 번역물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외국 베스트셀러 수입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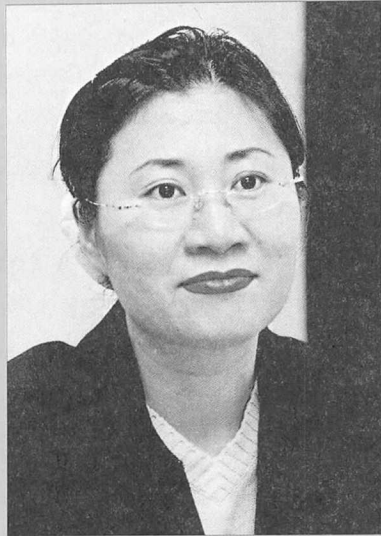
이가을 —— 동감입니다. 우리 정서에 맞는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베스트셀러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한 책을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동원해 아이들에게 유행시키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유행하는 책을 읽지 않으면 소외되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로 상업적인 책만 내는 일부 출판사



이가을씨

“출판사들은 책을 쉽게, 빨리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기획·출판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책들이 한권두권 더해질 때 출판사의 연륜도 쌓일 겁니다. 단순히 유행과 인기에 편승해 만든 책들은 시장에서 금방 사장되고 맙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쓴 창작물이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쓴 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미경씨



정병규씨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은 우리 문화의 토양에 맞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오래 남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때 어린이책을 파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들의 이런 행태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병규 —— 게다가 그런 번역물들은 국내 출판사들간의 심한 경쟁으로 수익원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최소한 저작권료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아이들에게 사은품 공세를 퍼붓는 등 온갖 판매방법을 동원합니다. 책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을 들인 번역물을 국내 서점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일은 근절돼야 합니다.

이가을 —— 무엇보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구조사한 기획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설사 나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번역물 일색입니다. 좋은 번역물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외국의 문화·생활·역사·정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번역서에 봄꽃으로 소개된 어떤 꽃은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피지 않습니다. 읽는 아이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규 —— 저도 한 소녀가 화가인 모네의 생가를 방문하는 내용이 담긴 번역동화를 읽으면서 문화적 이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음악가와 화가들을 제대로 소개해주는 기획물이 필요합니다.

백미경 —— 요즘 현장체험과 자연학습이 강조되면서 아이들이 과학분야의 책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의 들꽃이나 자연물을 다룬 책은 별로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국내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 기획물을 많이 내야 합니다.

이가을 —— 기본적으로 출판사들은 책을 쉽게, 빨리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기획·출판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책들이 한권두권 더해질 때 출판사의 연륜도 쌓일 겁니다. 단순히 유행과 인기에 편승해 만든 책들은 시장에서 금방 사장되고 맙니다.

백미경 —— 사실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책만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업성과 유행이 범람하는 출판환경을 도외시킨 채,

출판계에 자정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동화읽는 어른 모임’처럼 책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화운동을 펼치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 어린이 전문서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가을 —— 수용자들의 압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몇몇 출판사가 우리 정서에 맞는 자체 기획물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신통치 않자 중도하차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 속담처럼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어렵더라도 꾸준히 연구해서 보완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작가 양성 기반 마련해야

정병규 —— 번역서 위주로 책을 내다 보니, 우리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양성에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최근 기존의 어린이책 전문출판사 외에 성인물 출판사 대여섯 곳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어린이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 출판사는 1년동안 20여종이 넘는 번역물만 출간했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국내 작가의 발굴은 뒷전이고 일년에 수십종 이상의 번역물이나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물론 좋은 외국책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종자를 배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 어린이책을 무작위로 들여오면 결국 우리나라 작가들은 다 죽고 맙니다.

이가을 —— 출판사측에서는 좋은 작가와 화가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수준은 국제시장에서 인정할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보다는 화가들이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뒷받침하지 못하는 여건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외국에서는 출판사들이 화가가 그림책 한권을 그리는데 1년의 시간을 주고, 전속계약제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화가들은 2~3개월 동안 5백만원~1천만원을 받고 한권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림에 개성도 없고 작품의 질도 떨어집니다. 출판사들이 좀더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백미경 —— 창작그림책은 부족하지만, 창작 동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입니다. 실험적인 작가와 화가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합니다.

이가을 —— 외국에서는 서로 호흡이 맞는 작가와 화가, 출판사가 만나 팀을 이뤄 독특한 색깔의 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가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사가 임의적으로 화가를 선정해 그림을 맡깁니다. 결과적으로 작품들 사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원고와 그림이 상승효과를 내지 못해 책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개선돼야 합니다.

정병규 —— 이렇게 창작작가를 키워낼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개성있는 그림책이 나오기 어렵고, 그것은 곧 어린이책 수출의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이가을 —— 이번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갔을 때도 부스를 설치한 국내 출판사는 재미마주밖에 없었습니다. 도서전에 참관한 국내 출판인들은 많았는데, 대부분 외국 어린이책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 앞으로 한국의 부스가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병규 —— 지금까지 어린이책 출판의 문제들을 얘기해봤는데, 어린이 서점쪽으로 화제를 돌려 볼까요. 어린이책의 발전과 어린이책 전문서점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린이서점은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좋은 어린이책을 보급하는데 앞장서왔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어린이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다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어린이문화 텃밭 가꿔야

백미경 —— 다우리는 구로시민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어린이 전문서점입니다. 주변 환경이 다소 열악한 지역에서 시작했고, 처음부터 책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 문화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센터의 행사에 공동참여하면서 독자적으로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강좌,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어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의 실제 매출액은 처음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사도록 하는 순수한 서점 기능은 나아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의 수익금으로 부족한 서점매출을 메꾸는 형편입니다.

정병규 —— 실제로 어린이책 서점 중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책읽기·독서지도·그림지도 등과 같은 부대사업으로 경영적자를 메꾸지요.

이가을 —— 어린이책 전문서점이 책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빛 그림전, 동화 구연대회, 동요부르기 대회, 원화전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서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텃밭이 조금씩 가꿔지고 있지요.

저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호응이 높습니다. 무료로 신간을 포함한 좋은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

기 때문이지요. 서점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도서관만큼은 대성공입니다. 도서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다른 어린이책 서점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의 토양에 맞는 책 만들어야


정병규 —— 마지막으로 어린이책 출판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마디씩 해주지요.

이가을 —— 결국 출판사에 부탁하는 말이 되겠는데, 출판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누가 봐도 좋은 책,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좋은 책만 나온다면 어린이책 전문서점들은 이를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팔겠습니다.

백미경 —— 특히 국내 창작물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이 서점에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책은 번역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들이 쓴 책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정병규 —— 정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은 우리 문화의 토양에 맞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오래 남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때 어린이책을 파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긴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리 · 김정은 기자



코스닥에 「다음」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상한가 다름이 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디자인이 리드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한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는 노하우,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출판디자인의 모든것 북디자인 (단행본 · 학습지 · 잡지 · 사내외보), 광고, 홍보물 (카탈로그 · 브로슈어 · 패키지 · P.O.P · 포스터 · 캘린더), 일러스트